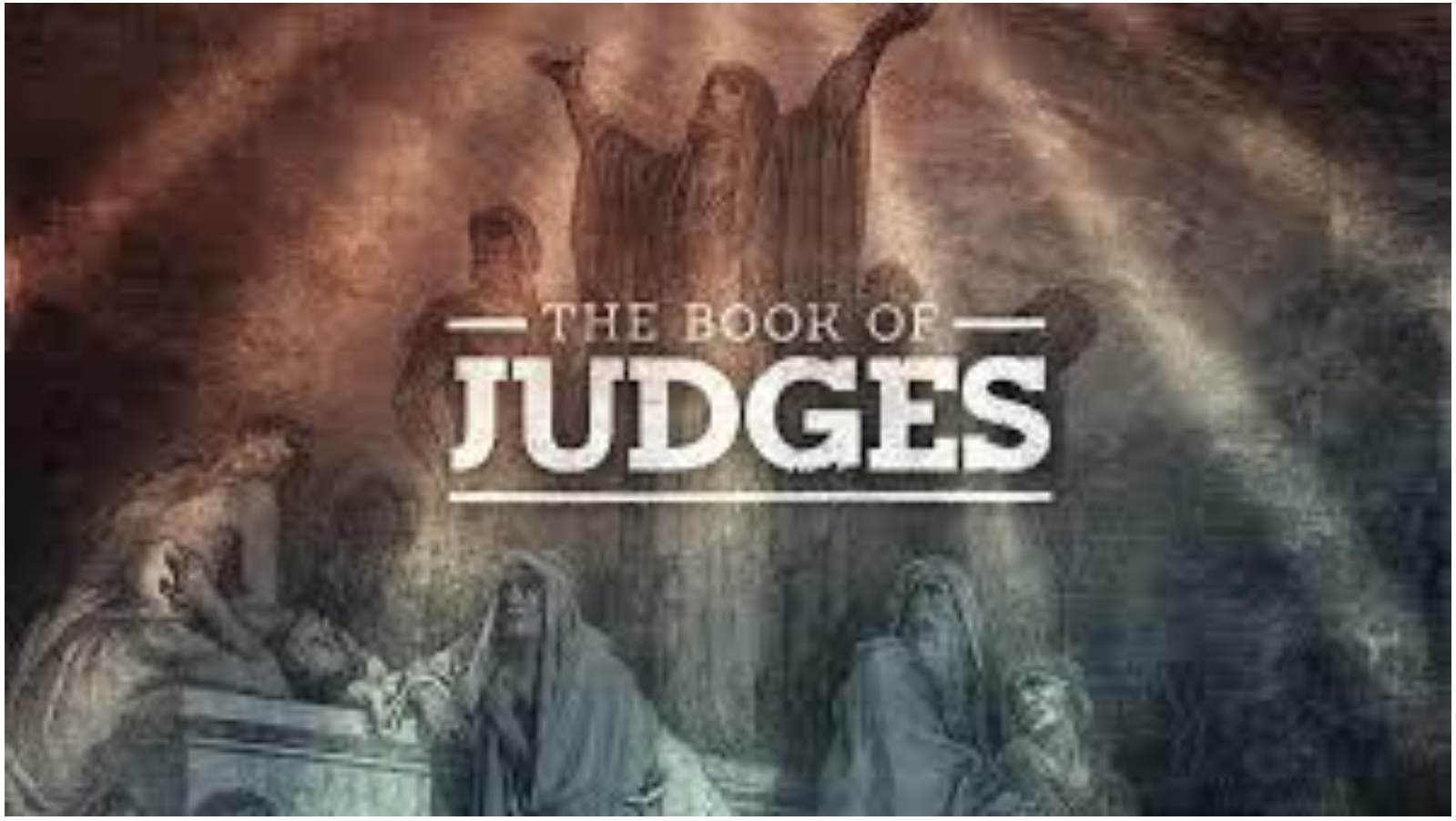
제4강의(7월27일)

‘절망과 구원’
판관들



버지니아 성 정 바오로 성당
ST. PAUL CHUNG CATHOLIC CHURCH

<여호수아가 죽다>
판관2장: 여호수아가 백성을 해산시키자, 이스라엘 자손들은 저마다 제 상속 재산이 있는 곳으로 가서 그 땅을 차지하였다. 여호수아가 살아 있는 동안 내내, 그리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신 그 모든 큰일을 본 원로들이 여호수아보다 장수하며 살아 있는 동안 내내, 백성은 주님을 섬겼다. 주님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백열 살에 죽었다. 사람들은 가아스 산 북쪽, 에프라임 산악 지방의 팀낫 헤레스에 있는 그의 상속 재산 경계 안에 그를 묻었다. 그의 세대 사람들도 모두 조상들 곁으로 갔다. 그 뒤로 주님도 알지 못하고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업적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나왔다. (판관 2,6-10)

약속의 땅 –판관들 시대-

판관기(判官記)

세페르 소프팀 ספר שופטים

크리테스 Κριτές

Book of Judges’

그가 에프라임 산악 지방의 라마와 베텔 사이에 있는 ‘드보라 야자나무’ 밑에 앉으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재판을 받으러 그에게 올라가곤 하였다.”(판관 4,5)

중간 중간 편집자는 자신의 신학을 전개하고 있다. ‘이스라엘 불충과 징벌’(2,11-19), ‘이민족들이 약속의 땅에 남은 이유’(2,20-23), ‘약속의 땅에 남은 이민족’(3,1-6)이라는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다.

판관기의 구성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입문 부분(1,1-3,6): 여호수아기 와 연결부분

둘째 부분(3,7-16,31): 12명의 판관들의 개별적 활동소개

세 번째 부분(17,1-21,25): 단 지파의 이주와 벤야민 지파와 다른 지파들과의 전쟁 이야기

판관기의 내용의 전개는 이스라엘이 악에 기우러지면 하느님께서 벌을 내리시고 백성들이 고통에서 부르짖으면 판관을 보내시어 구원하신다.

이스라엘 백성 ->
우상에 기울고 하느님 눈밖에 남 ->
하느님께서 벌을 내리심 ->
이스라엘 백성이 하느님께 도움을 청함 ->
하느님께서 판관을 보내심->
이스라엘을 구원하심

Kingdoms of
Israel and Judah
Sidon
PHOENICIA
LEBANON MTS.
ARAM
(SYRIA)
Damascus
Zarephath
Mt. Hermon
Tyre
Leontes R.
Kedesh
Hazor
GALILEE
BASHAN
Mt. Carmel
Edrei
Yarmuk R.
Shunem
Megiddo
Ramoth
Jezreel
Mt. Gilboa
GILEAD
ISRAEL
Samaria
Shechem
Succoth
Penuel
Mahanaim
Jabbok R.
AMMON
Shiloh
Joppa
Jordan R.
Rabbah
Bethel
Geba
Gilgal
Ekron
Ashdod
Jericho
Jerusalem
Heshbon
Libnah
Ashkelon
Bethlehem
PHILISTIA
Gath?
Lachish
Hebron
Gaza
Dead
Sea
Arnon R.
JUDAH
Gath?
Beersheba
Besor Gorge
modern
shoreline
biblestudy.org

Israel
PROVINCE OF SYRIA
TETRARCHY
OF
PHILIP
DECAPOLIS
SAMARIA
JUDEA
PEREA
IDUM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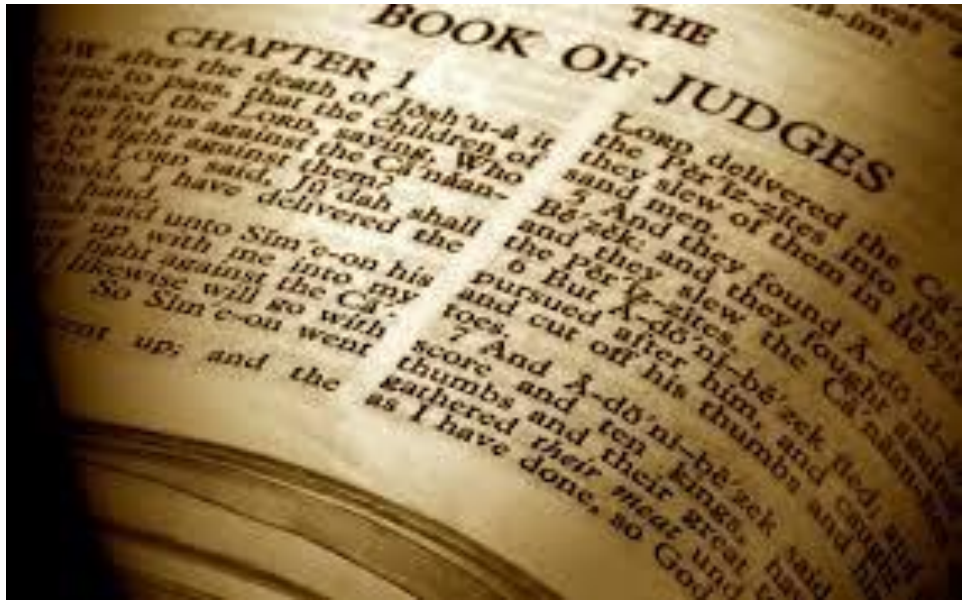
THE GREAT SEA
(Mediterranean Sea)
OTHNIEL
DEBORAH
GIDEON
JEPHTHAH
EHUD
SAMSON
PHOENICIA
MT. LEBANON
MT. HERMON
BASHAN
PHILISTINES
PLAIN OF SHARON
JORDAN R.
TARMUK R.
JABBOK R.
ARNON R.
SALT SEA (DEAD SEA)
WILDERNESS OF ZIN
EDOM
MOAB
AMMON
Sidon
Damascus
Tyre
Laish (Dan)
En-hazor
Kedesh
Abdon
Accho
Cabul
Chinnereth
Hazor
Kamaim
Ashtaroth
Aphek
Madon
Rimmon
Golan
Harosheth
Jabneel
Dor
Endor
Megiddo
Jezreel
Taanach
Beth-shan
Edrei
Raooth-gilead
Pella
Jabesh-gilead
Dothan
Mahanaim
Tirzah
Shechem
Penuel
Shiloh
Joppa
Lod
Naarath
Jazer
Bethel
Rabbath-ammon
Gibeon
Gezer
Jericho
Jerusalem
Heshbon
MT.NEBO
Medeba
Ashdod
Bethlehem
Beth-Shemesh
Ashkelon
Jahaz
Makkedah
Gath
Lachish
Eglon
Hebron
Dibon
Aroer
Gaza
Debir
En-gedi
Gerar
Arad
Beersheba
Ar
Raphia
Hormah
Kir-moab
Rehoboth
ASHER
NAPHTALI
ZEBULUN
ISSACHAR
MANASSEH
DAN
EPHRAIM
BENJAMIN
JUDAH
REUBEN
GAD
SIMEON
WATERS OF MEROM
SEA OF CHINNERETH
0
25 Miles
The 12 Tribes
and the Book of Judges
Bible History Online

Mediterranean Sea
ASHER
NAPHTALI
ZEBULUN
ISSACHAR
BASAN
MANASSEH
EPHRAIM
DAN
BENJAMIN
JUDAH
REUBEN
GAD
AMON
SIMEON
PHILISTIA
MOAB
Dead Sea
River Jordan
Cedes
Hazor
Kinneret
Astarot
Acsaf
Cammat
Helcat
Mount Tabor
Jocneam
Edrei
Dor
Jafia
Jezreel
Kamon
Megiddo
Taanach
Beit She'an
Ramot de Galaad
Tirza
Samir
Zafon
Siquem
Mahanaim
Piraton
Gat-Rimon
Afec
Silo
Jaffa
Elteke
Bet-Horon
Betel
Ai
Gilgal
Jazer
Rabbath Amon
Gezer
Gabaon
Jericho
Gibeton
Hesbon
Mefaat
Ashdod
Ekron
Jerusalem
Beser
Mount Nebo
Ashkelon
Gat
Jarmut
Bethlehem
Laquis
Jahaza
Hebron
Debir
Estemoa
Gerar
Beersheba
Arad
Kir-Hareset

가나안 땅 정복에 대한 어려움과 가나안 원주민과의 갈등은 끝이 나지 않았다. 여호수아와 그 지파가 군사적 행동으로 가나안을 정복했다고 해도 원주민들의 모든 것을 장악한 것이 아니었다고 본다. 그래서 지파들이 평등하고 야훼중심으로 뭉쳤던 것이 험준한 산악과 지형에 따라서 모세 지도하에 체제적이었던 지파연합 연합이 와해되는 바람에 서로 영토와 영토가 분열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지역마다 원주민과 인접 국가들과의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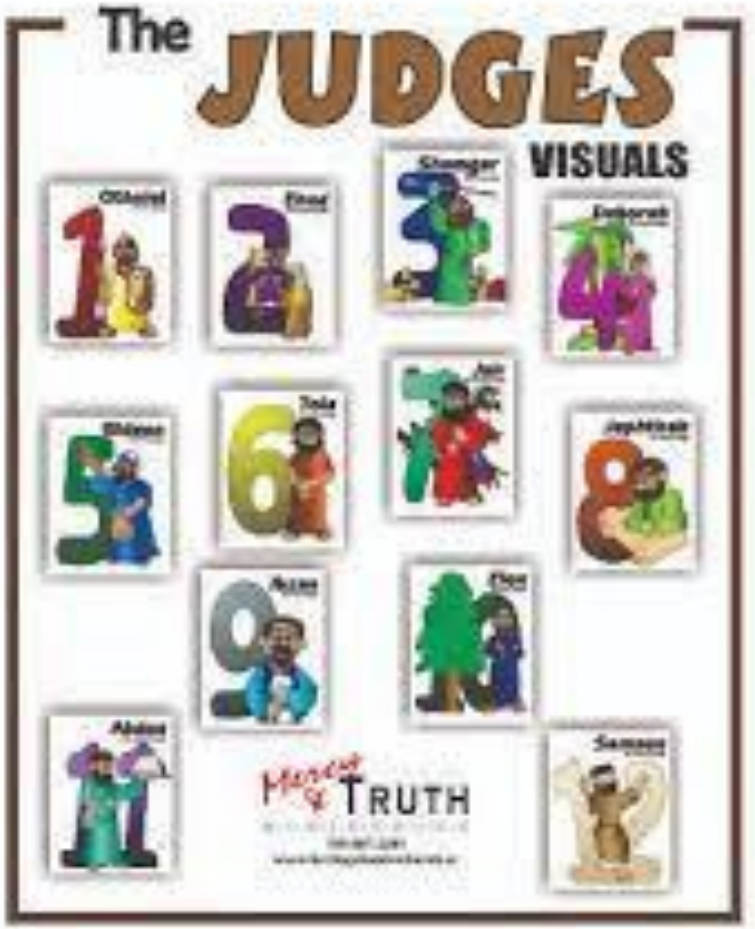
여기에서 성경은 모세 체제 하의 사막생활과 여호수아 체제 하에 가나안 정복의 시대가 끝나고 지역과 지역마다 분쟁의 시대를 성경의 용어로는 판관시대라고 할 수 있다.

판관의 이야기들은 체제적이거나 시대적인 것도 아닌 대부분 단편적으로 내려오는 전쟁 지도자들의 이야기를 어느 편집자에 의해서 지금의 판관기로 옮겼으리라 본다. 그래서 인물에 대한 자세한 사료가 충실하게 소개한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에 대한 인물 조명이 있는가 하면 대부분 설화의 한 인물로 조명되는 판관들도 있는 것이다. 어느 판관은 한 줄에서 몇 줄로 소개되는 판관들도 있는데 학자들이 보통 이들을 소판관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인접적대국가	판관들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리사다임 -8년지배 (3,8)	오드니엘: 40여년간 평온
모압 왕 에글론 -18년 지배 (3,18)	에훗: 80년간 평온 삼가르
가나안 왕 야빈 -20년 지배 (4,3)	드보라와 사령관 바락 야엘: 40년간 평온
미디안 족 -7년 지배 (6-8장)	기드온: 40년간 평온 톨라: 23년 간 다스림 야이르: 22년 간 다스림
암몬인들 -18년 지배 (11-12장)	입타: 6년간 평온 입찬: 7년간 다스림 엘론: 10년 간 다스림 압돈: 8년 간 다스림
필리스티아 인들 -40년 지배	삼손: 20년간 평온

	성경본문	판 관	재위기간
1	3,7-11	오트니엘	40년
2	3,12-30	에 훗	80년
3	3,31	삼가르	1년
4	4,1-5,31	드보라	40년
5	6,1-8,35	기드온	40년
6	9,1-57	[아비멜렉] 역행	3년
7	10,1-2	톨 라	23년
8	10,3-5	야이르	22년
9	11,1-12,7	입다	6년
10	12,8-10	입찬	7년
11	12,11-12	엘론	10년
12	12,13-15	압톤	8년
13	13,1-16,31	삼손	20년



30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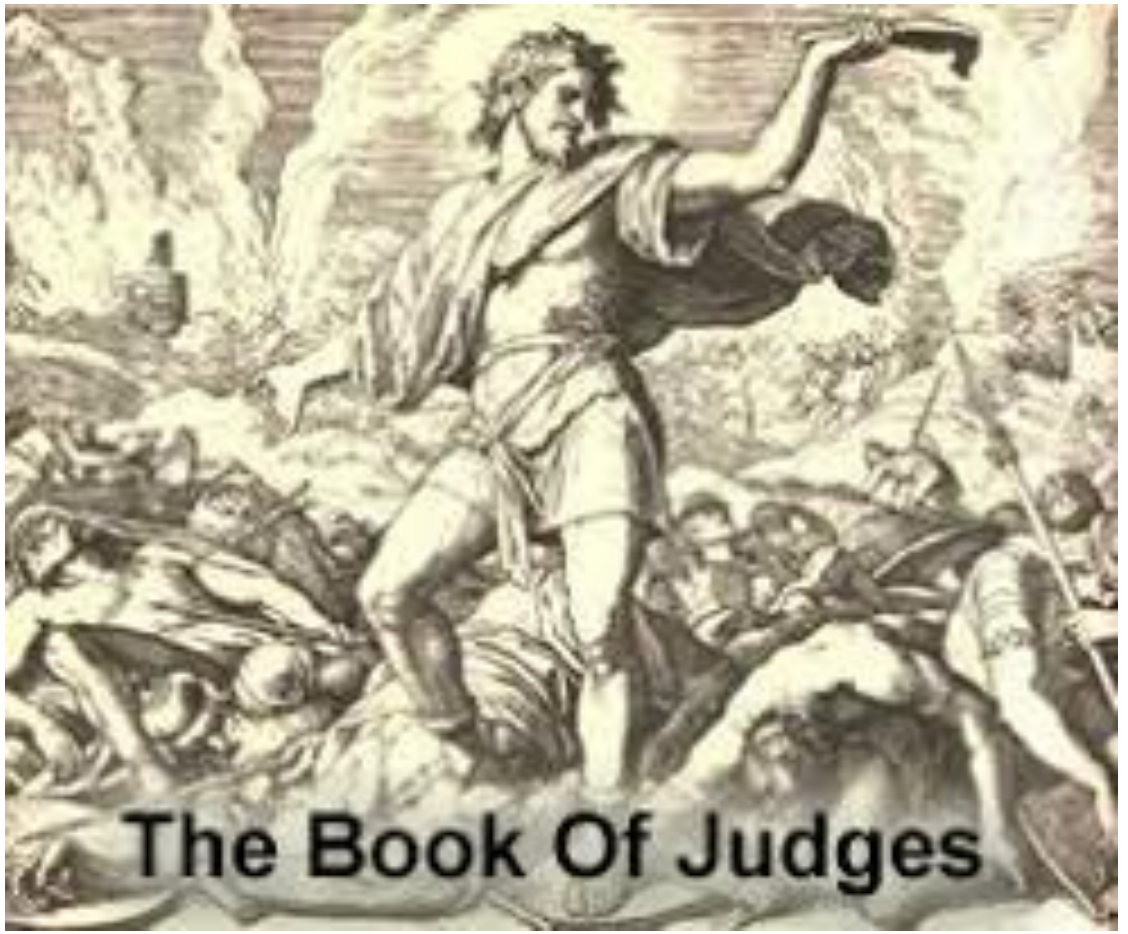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이후 각 지파는 각각 영토를 갖게 된다. 그런데 여호수아에서 대부분 정복한 땅이라 하면서도 일부분 정복하지 못한 땅을 제시하였다. 성경기록대로 이스라엘 지파별로 그 땅을 정복하고 차지한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차지하고 영향력을 준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하느님께서는 지파별로 또 지역 별로 원 주민들과의 갈등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판관들을 그때 마다 부르시어 이스라엘을 이끌어 나가도록 하셨다.

모세가 모압에서 몇 차례 당부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지파별로 땅을 차지하다보니 그곳 주님들의 문화와 종교에 영향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것이 전체 이스라엘에게는 긍정적이기 보다 부정적인 면이 더 컸다고 본다.

–오트니엘, 에훗, 삼가르, 드보라, 톨라, 야이르-

막스 웨버의 '카리스마와 일상화(Charisma and Routinization)'라는 용어로 사회의 구조에서 카리스적인 지도자(종교적 지도자, 예언자, 판관 등등)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davidmacadam.blogspot.com

카리스마적 지도자는 개인이고 그 권위의 기원이 신으로부터 받는 것이고 세습되지 않고 개개인에게 주어지고 한번 잃으면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본 것입니다.

Carisma and Routinization

카리스마적인 지도자는 항상 일상화(Routinization)로 변형 될 가능성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제도'에 흡수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 판관들의 이야기

원주민들과 인접국
가들과의 갈등시기
기원 전 12-11 세기

오트니엘, 에훗, 삼가르, 드보라,
톨라, 야이르, 입찬, 엘론, 압톤

Judges (Shoftim) סֵפֶר שׁוֹפְטִים

(SEH-fehr shoh-fə-TEEM)

Copyright © www.dictionary.co.il

가. 기드온 (6-8장)

하느님으로부터 기드온은 미디안의 횡포에 시달리는 이스라엘을 구하라는 사명을 받는다.

catholicsaints.info/gideon-the-judge/

오프라에서 농사일을 하는 그는 미다안의 눈을 피해 밀이삭을 떨다가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는다. 그는 하느님의 명령 앞에, 이스라엘을 이집트로부터 구출하라는 부르심을 받고 선뜻 나서지 않는 모세처럼 (탈출 4,10-14 참조), 주저하며 이유를 대고 있다. 우선 그는 훈련된 전사(戰士)가 아니었다.

“나리,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계시다면, 어째서 저희가 이 모든 일을 겪고 있단 말입니까? 저희 조상들이 ‘주님께서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오지 않으셨더냐?’ 하며 이야기한 주님의 그 놀라운 일들은 다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은 주님께서 저희를 버리셨습니다. 저희를 미디안의 손아귀에 넘겨 버리셨습니다.” (6,13)

자신의 지파인, 므니쎄에서도 보잘 것 없는 아비에젤 후손에 속하고, 나이도 어리다는 이유를 대면서 하느님 부르심을 사양합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그에게 함께 계시겠다는 위로와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며 사명을 내리신다

새끼 염소 한 마리를 잡고 밀가루 한 에파로 누룩 없는 빵을 만들었다. 그리고 고기는 광주리에, 국물은 냄비에 담아 가지고 그분께 내다 바쳤다.(6,19)

기드온이 군사들을 물가로 데리고 내려가니,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분부하셨다. "개가 핥듯이 물을 핥는 자를 모두 따로 세워라.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자들도 모두 따로 세워라." (7,5)

Always Proven True: Bible Accuracy/ "The Bile and Its Story Taught by One Thousand Picture Lesson3" 편집: Charles F. Horne, and Julius A. Bewer, 1908

그렇게 하였더니 손으로 물을 떠서 입에 대고 혀로 핥는 자들의 수가 삼백이었고, 나머지 군사들은 모두 무릎을 꿇고 물을 마셨다. (판관 7,6)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물을 핥아 먹은 사람 삼백 명으로 너희를 구원하고, 미디안을 네 손에 넘겨주겠다. 나머지 군사들은 모두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여라." (판관 7,7)

기드온이 왕권을 거부하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말하였다. "당신께서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이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러자 기드온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내가 여러분을 다스릴 것도 아니고 내 아들이 여러분을 다스릴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을 다스리실 분은 주님이십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또 말하였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청할 것이 있습니다. 저마다 전리품 가운데에서 고리를 하나씩 내주십시오." 적군이 이스마엘인들이었기 때문에 금 고리를 달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자 그들은 "드리고 말고요." 하면서, 겉옷을 펴고 저마다 전리품 가운데에서 고리를 하나씩 그 위에 던졌다. (8,22-25)

기드온은 아내가 많아 제 몸에서 난 아들이 일흔 명이었다. 스켐에 있는 그의 소실도 그에게 아들을 하나 낳아 주었는데, 그는 그 아이에게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다. (8,30-31)

–기드온, 아비멜렉-

전승의 자료가 많고 자세한 기드온과 그의 아들 아비멜렉은 상반되는 인물로 비교할 수 있다.

en.wikipedia.org

아비멜렉이 임금이 되다

여루빠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스켐으로 외숙들에게 가서, 그들과 외가의 모든 친족에게 청하였다 "'여루빠알의 아들 일흔 명이 모두 여러분을 다스리는 것과 한 사람이 여러분을 다스리는 것 가운데에서 어느 것이 낫습니까?' 하고, 스켐의 모든 지주에게 직접 물어보아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여러분과 한 골육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9,1-2)

아비멜렉은 이스라엘을 세 해 동안 다스렸다. 그때에 하느님께서 아비멜렉과 스켐의 지주들 사이에 악령을 보내시니, 스켐의 지주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게 되었다. (9,22-23)

Gustave Doré, 아비멜렉의 죽음

그 뒤에 아비멜렉은 테베츠로 진군하여 진을 치고서는 그곳을 함락하였다. 아비멜렉이 그 탑으로 가서 공격하는데, 탑 어귀까지 다가가서 불을 질러 태우려고 하였다. 그때에 어떤 여자가 맷돌 위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로 던져 그의 두개골을 부수어 버렸다. (9,50.52-53)

“아비멜렉은 곧바로 무기병을 불러 말하였다. ‘네 칼을 뽑아 나를 죽여라. 사람들이 나를 두고 ‘여자가 그를 살해하였다.’ 할까 두렵다.’ 그리하여 그 시종이 아비멜렉을 찌르니 그가 죽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저마다 고향으로 돌아갔다.”(9,54-55)

판관 입타

길앗 사람 입타는 창녀의 아들이었는데 힘센 용사였다. 길앗이 이 입타를 낳았다. 길앗의 아내도 그에게 아들들을 낳아 주었는데, 그들이 자라서 입타에게, "너는 다른 여자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집안에서 상속 재산을 받을 수 없다." 하며 그를 쫓아내었다. 그래서 입타는 자기 형제들을 피하여 달아나 톱 땅에서 살았는데, 건달들이 입타에게 모여들어 그와 함께 노략질하러 다녔다. (11,1-3)

얼마 뒤에 암몬 자손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였다. (11,4)

“그러나 입타는 길앗의 원로들에게 말하였다.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의 집에서 쫓아낸 것이 바로 여러분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곤경에 빠졌으면 빠졌지, 나를 찾아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자 길앗의 원로들이 입타에게 대답하였다. ‘그래서 우리가 그대에게 온 것이오.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들과 싸우고, 길앗에 사는 모든 주민의 우두머리가 되어 주시오.’ 이에 입타가 길앗의 원로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나를 도로 데리고 가서 내가 암몬 자손들과 싸울 때, 주님께서 그들을 나에게 넘겨주시면, 내가 여러분의 우두머리가 되는 것이오?’ 주님의 영이 입타에게 내렸다. 그리하여 그는 길앗과 므나쎄를 가로질렀다. 그리고 길앗 미츠파로 건너갔다가, 길앗 미츠파를 떠나 암몬 자손들이 있는 곳으로 건너갔다.”(판관 11,7-9.29)

"제가 암몬 자손들을 이기고 무사히 돌아갈 때, 저를 맞으러 제 집 문을 처음 나오는 사람은 주님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을 제가 번제물로 바치겠습니다." (11,31)

"아, 내 딸아! 네가 나를 짓눌러 버리는구나. 바로 네가 나를 비탄에 빠뜨리다니! 내가 주님께 내 입으로 약속했는데, 그것을 돌이킬 수는 없단다." (11,35)

딸은 동무들과 함께 산으로 가서 처녀로 죽는 자신을 두고 곡을 하였다. (11,38)

삼손이 태어나다

그때에 초르아 출신으로 단 씨족에 속한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마노아였다. 그의 아내는 임신할 수 없는 몸이어서 자식을 낳지 못하였다. 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그 여자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보라, 너는 임신할 수 없는 몸이어서 자식을 낳지 못하였지만,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13,2-3)

그 여자는 아들을 낳고 이름을 삼손이라 하였다. 아이는 자라나고 주님께서는 그에게 복을 내려 주셨다. (13,24)

삼손의 복수와 죽음

fi.wikipedia.org/

필리스티아 제후들이 자기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물을 바치면서 기쁘게 지내려고 한데 모였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의 원수 삼손을 우리의 신께서 우리 손에 넘겨주셨네.” (16,23)

그러자 삼손은 자기 손을 붙들어 주는 소년에게 부탁하였다. “이 집을 버티고 있는 기둥들을 만질 수 있는 곳으로 나를 데려다 다오. 거기에 좀 기대야겠다.” (16,26)

그리고 삼손이 “필리스티아인들과 함께 죽게 해 주십시오.” 하면서 힘을 다하여 밀어내니, 그 집이 그 안에 있는 제후들과 온 백성 위로 무너져 내렸다. 그리하여 삼손이 죽으면서 죽인 사람이, 그가 사는 동안에 죽인 사람보다 더 많았다. (16,30)